



유비무환

Better safe than sorry

우리나라 포장산업은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약 34조원이며 그 중 식품포장재가 약 14조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약 6%씩 성장해 머지않아 2020년에는 약 5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 같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BT, IT, NT 등 융복합기술을 통한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 개발로 고용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장과 관련된 트렌드 중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전제품 매장에 가면 미니 전기밥솥, 미니 냉장고가 있고, 주택도 소형 평수가 인기듯이, 간편하고, 빠르게 식사할 수 있는 포장이 소비문화의 큰 축을 이끌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약 24%인 1인가구는 10년 후에는 약 32%까지 증가하여 3~4인 가구비율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 봤다. 이처럼 1인 소비를 위한 포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그 밖에 스마트 포장으로 TTI나 RFID 등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꾸준히 개발 보급될 것이다.

요즘 식품포장에서는 ‘바른’, ‘자연’, ‘착한’, ‘프리’, ‘제로’ 등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이젠 ‘글루텐 프리’ 까지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왜 그럴까?

식품은 소비재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이 많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포장지에 표기된 유통기간 외에 열량, 당,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등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본다. 모두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을 때 먹을거리 확보가 중요했지만, 먹고 살만큼 된 요즘은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만큼 불안도 커졌다.



이 광 호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품안전체감지수는 약 42% 정도로 많은 국민은 아직 우리나라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현실이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다고 여길까?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가 꼽은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식품첨가물이 약 35%로 1위, 환경호르몬이 약 26%로 2위였고, 그 뒤를 농약, 중금속이 따랐다. 그런데 환경호르몬 물질은 대부분이 포장재에 사용되고 있다. 예로 비닐 랩에서 프탈레이트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비스페놀-A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결국 사용이 금지됐다. 이처럼 포장재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식품안전의 중요한 위협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멜라민이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따른 식품사고로 유해식품의 회수, 리콜 등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던 것을 오는 12월부터 영유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문제 발생 때 유통차단 및 회수, 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처리된다.

식품포장재도 안전성에 있어 이력추적제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식품이력추적제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와 협업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는 식품업체와 제품에 고유번호를 발급하여 국가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고, 식품원재료 등에 대한 표준 코드를 마련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제품신고 단계부터 차단하게 된다.

또한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는 식품안전 행정정보와 위해식품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이 찾기 쉽게 제공하고 식품업체가 식품안전관리서비스를 통해 각종 안전정보와 관리기준을 사전에 제공하여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게 된다. 이처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되면 국가 차원의 식품안전관리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따라서 식품포장재의 안전성 관리 또한 이에 걸맞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의 안전성 관리도 개선됐다.

'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간 유통되는 제품이 공업용인지 식품용인지 구분이 안 돼 문제시 시비 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식품에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식품용이라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금속으로 만든 기구들이 대상이



며, 그 후 단계적으로 고무제, 합성수지제, 종이제 등으로 적용된다. 표시방법으로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나 '식품용'이란 단어로 해야 한다.

향후에는 나노소재 등을 이용한 신소재 포장재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나노 소재의 안전성에 대해 반신반의 하거나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첨단 기술인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GMO 식품이 국민들 사이에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를 거울삼아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소비자

들은 안전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식품포장재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소비자의 선호도는 어떠한지, 유통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주는 안전성은 괜찮은지, 최종 폐기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가 없는지, 어떤 물질들이 이행되고, 어떻게 검출할 것인지, 위해평가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찾아내야 한다.

괜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지 않기 위해서다. 유비무환이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